

당뇨병환자에서 당뇨병성 신증과 비당뇨병성 신증의 임상적 차이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, 병원병리학교실²

신영신¹ · 이소영¹ · 최영진² · 장세나¹ · 김형욱¹ · 진동찬¹

A Differential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iabetic Nephropathy and Non-diabetic Renal Disease in Diabetic Patients

Young Shin Shin¹, So Young Lee¹, Young Jin Choi², Se-Na Jang¹, Hyung Wook Kim¹ and Dong Chan Jin¹

¹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

²Department of Hospital Pat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

목적 : 당뇨병환자의 신질환에는 당뇨병성 신증과 비당뇨병성 신증이 포함될 수 있다. 그러나 대개는 두 양상 사이의 임상적 차이는 확실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. 본 저자들은 이러한 두 질환사이의 감별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조직검사를 실시한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.

방법 : 가톨릭 대학교 강남성모병원과 성빈센트병원에서 199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신조직검사를 실시한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실시하였다.

결과 : 대상 환자는 총 48명 (남자 26명, 여자 22명, 나이 50 ± 12 세) 였다. 신조직검사를 실시한 이유로는 신증후군이 21명(43.7%)으로 가장 많았고, 당뇨병성 합병증이 없는 상태의 단백뇨 (19명), 신기능저하 (5명), 기타 순이었다. 신조직검사 결과 당뇨병성 신증이 28명(58.3%)으로 가장 많았고, 비당뇨병성 신질환은 막성사구체 신염 7명, IgA 사구체 신염 7명이었다. 대상군을 당뇨병성 신증과 비당뇨병성 신증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을 때 당뇨병성 망막증 유무만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고, 그 이외 고혈압 유무, 당뇨 유병기간, 혈뇨 여부는 통계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였다. 조직검사에서 막성사구체 신염으로 나와 면역억제제 치료를 한 3명의 환자의 경우에는 완전 관해를 나타내었다.

결론 :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비당뇨병성 신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조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조직결과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면역억제제 사용등도 고려하여야 하리라 여겨진다.

Key Words : 당뇨병성 신증, 비당뇨병성 신증, 신조직검사

Diabetic nephropathy, Non- diabetic nephropathy, Kidney biopsy